

10만 선교를 위해 갖춰야 할 것

- 작성일: 2010년 2월 16일 (화) 오전 11:55
- 작성자: 김진미 (부산 열매교회, 교역자)

2010년 2월 16일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깊은 사랑을 느끼며 지옥 길로 가는 생명들을 살리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아픔과 하나님, 성령님, 선생님의 애타는 마음이 느껴져 계속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게 되었고, 그러한 하늘의 마음으로 죽어가는 생명을 어떻게 구원해야 할지 몰라 며칠을 계속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 하나님 말씀 *

섭리의 사랑하는 자들아,
나 너희의 신랑 여호와니라.

내 오늘 이를 통해
너희에게 하고자 하는 말이 있으니
귀 기울여 잘 들어 보도록 하여라.

이 섭리 역사 주인은 나 여호와니라.
내가 만들었고
내가 직접 모든 것을 집행하며
주관하고 다스리고 있노라.

내 너희 선생을 통해
나의 모든 뜻을 말하고 있으니
너희는 철통같이 너희 선생과 하나 되어
나의 뜻을 좇으라.

성경을 잘 읽어 보아라.
나 여호와하는 시대 가운데
반드시 역사하는 방법이 있다.
무엇이겠느냐?
절대 시대 내가 세운 사명자와 하나 되어
나를 찾고 나를 사랑하기를 나는 원하느니라.

나의 역사 방법을 몰라
시대 가운데 나를 사랑하나 내 뜻 거스려
화 받은 자가 얼마나 많으냐?
구약 내가 많은 선지자를 보내었건만
그들은 나의 이름으로 그들을 죽였느니라.

신약 내 아들 예수를 보내었을 때도 어떠하냐?
그들이 나의 이름으로, 나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내 아들 예수를 죽였느니라.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은
절대 내가 보낸 자,
시대 내가 세운 사명자와 일체되는 것!
그것이 핵심이니 그것을 놓치면 안 된다.
그러한 실수를 너희만큼은 절대 하여서는 안 된다.
철통같이 하나 되어라.

어떠한 환난보다 무서운 것은
내가 보낸 사명자를 불신하는 환난이 아니냐?
절대 나와 너희 선생과 일체되어 있으면
어떠한 환난이 와도 넘어지지 않으리라.
그러니 너희 모두는 목숨 걸고 하나 되어라.
절대 틈이 생겨서는 안 된다.

내 이 역사, 눈물로 이룬 역사이다.
6000년의 세월 나는 진정 눈물로 이때를 기다려
왔노라.

너희 선생이 얼마나 귀한 자인 줄 아느냐?
6000년의 내 눈물을 거두게 한 자이다.
6000년 이루지 못한
내 사랑의 한을 풀어 준 자이다.
그가 아니었으면
이 신부의 역사, 재림의 역사
시작하지도 못했느니라.

지금 너희가 해야 될 것은
오직 성삼위와 너희 선생과 일체되는 것이다.
내 마음이 지금 얼마나 조급하고, 다급한지 너희는
모를 것이다.
2009년 성령의 불길 같은 역사로,
내 아들 예수의 몸부림으로,
그리고 너희 선생의 목숨 건 사랑으로.
내가 한결같이 한 것이 무엇이겠느냐?

바로 너희와 내가 사랑으로 일체되는 것이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성삼위와 내가 세운 사명자와 일체되는 것!!
어떠한 것도 틈탈 수 없는
완전한 사랑을 나는 원하느니라.

그와 같이 일체가 되어야
내 원하는 바, 나의 구원의 뜻 이룰 수 있다.
너무 시간이 없다.
나는 너무나 마음이 다급하구나.

10만 역사, 10만 구원의 역사!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
10만 역사뿐이겠느냐?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내가 많은 구상과 계획을 준비하고 있으나 사랑으
로 하나 되지 않으면
도무지 이 역사는 이룰 수 없느니라.
사탄이 그것을 알고
이 섭리의 하나 됨을 막고
혼돈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냐?
너희 모두는 철통같이 하나 되어라.
나 여호와가 진두지휘 할 테니
절대 너희 스승과 일체되어 나를 따르라.

먼저는 10만 역사다.

10만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이냐?

먼저는 나 여호와와
완전히 사랑으로 일체되어야 한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기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느니라.
너희 모두는 먼저 내 사랑에 목숨을 걸어라.
성삼위에게 사랑의 불을 받아야 하느니라.
아직도 사랑의 불을 받지 못한 자 너무 많다.
이 사랑의 불을 받지 못하면
10만 역사도, 재림도, 구원도 이룰 수 없느니라.
그러니 목숨을 걸라는 말이다.

그리고 성령의 불을 받아야 한다.
성령의 불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
육적인 모든 사고 바꾸어야 한다.
사람을 중심한 인본적인 사고,
부정적인 사고,
자기 주관적 사고,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현실적인 사고,
근본을 모른 채 열심 내는 무지한 사고,

나와 일체되지 못한
모든 사고를 바꿔야 하느니라.

너희 어느새 내가 직접 지휘하는
성령역사, 성령집회를 소홀히 하는 자 있구나.
나는 모든 것을 정확히 보는 여호와니라.
성령집회 참석치 않는 자,
내 그의 구원을 장담할 수 없느니라.
그날에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하는 자들이 되길 원하
느냐?
너희 모두는 다시금 긴장하여
내 직접 집행하는 성령집회에
모두 참석하라.
너희 구원이 달려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말씀으로 완벽하게 무장하여야 된다.
말씀 없이 10만 역사 이룰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반드시 시행하라.

너희는 매일 성경을 상고하라.
하루에 10장 씩 성경을 읽어라.
힘들면 최소 3장은 읽어야 한다.
시간이 없다하나 그것 다 핑계니라.
틈틈 시간에 얼마든지 읽을 수 있다.

그리고 주일말씀 수요말씀을 매일 상고하라.
그리고 말씀을 읽기만 하지 말고
너의 무기가 될 수 있도록 정리하여 외우라.

반드시 금요 집회 말씀을 듣고
네 모든 사고를 깨우라.
나의 계시의 말씀은
내 깊은 심정을 말하는 것이니
반드시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읽고 또 읽어라.
10만 역사 어떻게 이루나 걱정만 하지 말고 그 시
간에 내 말씀을 읽고 무장하여라.

그리고 너희 모두는 철통같이 하나 되어야 한다.
여호수아 군대를 보아라.
그들이 승리할 때 무엇으로 승리 하였느냐?
절대 나와 하나 되었다.
그리고 내가 세운 사명자와 하나 되었다.
그리고 모든 병사들이 서로 하나 되었을 때 승리를
거둔 것이다.

절대 사명자의 말을 믿어 주고
그의 말을 내 말이라 생각하며
절대적으로 그 말에 순종하였을 때
나 여호와가 함께하여 승리한 것이다.

하나 됨은 무엇보다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먼저는 나와 하나 됨,
다음은 사명자와 하나 됨이다.
절대 너희는 너희 선생과
너희 선생의 육신 되어 뛰는
부흥강사와 하나 되어라.

그리고 각 센터에 세운 사명 자들과
절대 하나 되어라.
선교회와 하나 되고,
각 부서 세운 자들과 하나 되고,
각 지역은 내가 세운 지역장과 하나 되고,
각 교회는 교역자와 하나 되고,
교회 크고 작은 조직 가운데
내가 세운 사명자와 하나 되어라.

사명자가 때로는 부족하여도
사랑으로 믿어 주고 하나 될 때
내가 더욱 능력 주고 함께하는 것이다.
사명자의 부족은
내가 그에게 말하고 판단하리니
너희는 서로 하나 되고 사랑하는 조건을 세워라.
하나 된다고 하여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하나 되라는 말이 아니다.
절대 나를 중심으로
서로 사랑하며 대화하며 의논하며
하나 되라는 말이다.

각 기관의 사명자들은 들으라.

머리는 오직 나 여호와다.
그리고 내가 세운 시대 사명자는 하나다.
그러니 오직 그의 말을 그의 말로 듣지 말고 내 말
고 듣고 절대적으로 지켜 행하고 빠른 구름 되어
목숨 걸고 행하라.
육신이 매여 있다고
상황을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자들,
모두 육적인 자들이다.

그를 통해 내가 하는 것을 모르는 자들,
속히 그 생각을 바꾸어라.

그리고 자기에게 맡긴 사명지에서
네 자신이 머리가 되지 않게 늘 근신하라.
그렇지 않으면 실수하게 되고 사탄이 틈타는 것이
다.
네가 모든 것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다.

절대 나와 일체되고
나에게 묻고 너희 선생에게 묻고
내 뜻대로 할 수 있도록
나의 뜻을 정확히 살피고 파악할 수 있는
감각이 있어야 한다.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내 뜻 내 의향이 무엇인지 살피라.
네 뜻을 내 뜻이라 착각하는 자 있구나.
절대 네 뜻대로 하지 마라.

네 뜻, 네 생각을 관철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이 무엇인지
항상 나에게 너희 선생에게 물어보고,
따르는 모든 자들이
나의 뜻 안에서 모두 개성대로
능력 발휘할 수 있도록
그 능력을 살려주는 역할을 할 자가
사명자가 해야 될 일이다.

그리고 사명자에게는 나의 심정을 주느니라.
그러나 그 심정 받았다고
그것을 자기식으로 전달하거나
자기식으로 이루면 절대 안 된다.
심정을 받았으면 그 심정을 전하는 방법도 내가 원
하는 방법대로 해야 하느니라.
심정 탄다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며
강하게 밀어붙이면 안 된다.

내가 다시 한 번 말하니
사명자들은 똑똑히 들으라.
너희를 뜻이 있어 먼저 세운 것이지
절대 따르는 자보다 나은 자가 아니니라.
나 여호와 앞에 나은 자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 어린 자를 무시해서도 안 되고
자기 밑의 사람을 함부로 대해서도 안 된다.

작은 자를 통해 내 말할 때 있으니
모두의 말에 귀 기울일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져라.

그리고 무엇보다 사명으로 강하게 하는 자 나는 쓰지 않는다.

지도자 가운데 아직도 말로 강하게 하는 자, 표정으로 강하게 하는 자,
분위기를 강하게 억압적으로 이끄는 자 있구나.
모두 바꾸어라.

그것은 나의 방법이 아니다.
바꾸지 않으면 내가 그를 바꿀 것이다.
너희 모두는 권위 의식과 주권 의식을 버리라.

모든 모임을 할 때 절대적으로 사랑으로 하여라.
서로 무관심하며 일만 해도 안 된다.

그러한 곳이 많구나.
절대 다툼으로 하면 안 된다.
2~3명이 모인 자리에도 내가 함께 있다는 것 명심
또 명심하여라.

절대 모임을 할 때는 먼저 사랑으로 대화하여라.
사랑이 빠진 어떤 것도 나는 받지 않느니라.
내가 너희 선생 통해 가르쳐 주었듯이
의무적인 것은 나는 받지 않는다.
진심과 진정만 통하는 나 여호와니라.

모임 시 반드시
서로 사랑으로 안부를 묻고,
사랑으로 대화하고,
모임 분위기를 내 사랑으로 충만하게끔
기쁨으로 유쾌하게
희망과 소망이 넘치게끔 하여라.
그러한 곳에 나 여호와가 함께하리라.
이것이 작은 말이 아니니라.
반드시 반드시 그리하여라.

의견이 달라도 얼굴 붉히며 말하면 안 된다.
전능자 나 여호와가 함께 있다면 그리하겠느냐?
절대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며
누구든지 말을 편안하게 말할 수 있게 만들어 주어라.
의견이 다르다 하여 서로 견제하고
감각 없는 자다 치부하면 안 된다.
너희가 견제하고 원수 시 할 자는 사탄이거늘 왜

형제끼리 견제하며
함부로 판단하며 대하느냐?
나는 화평의 신이요,
사랑의 신이요, 인격의 신이니라.
너희 또한 형제를 그같이 대하여라.

나는 모두 각각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이니
모두의 의견을 모으다 보면
내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되리라.
모든 모임 가운데 말을 하는 자는
편안하게 말하되
분위기가 흐트러지지 않게 신중하게 말하고, 눈에 보이는 육적인 관점에서가 아니라 보다 나의 생각을 살피며
보다 긍정적이게, 화평하게 말을 이끌어 내어라.

그러니 모임을 시작할 때
모든 모임이 내 뜻대로 될 수 있도록
먼저 기도하고
그 후 충분히 대화하고
충분히 서로 의견을 나누며
그 가운데 내가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사명자는 그것을 깨닫고
정리해 주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도
꼭 확인 또 확인하여야 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 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니
너희 모두는 모든 모임을
사랑으로, 유쾌하게 이끌도록 하여라.
외식과 형식으로 모임을 하고
서로 대하였던 것 모두 바꾸어라.
사랑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니라.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곳에 내 능력 더하고
생명의 축복 더하리라.

모든 뜻을 이루려면
이와 같이 조직이 일체되는 것이 먼저다.
이 섭리역사 사랑으로 일체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느니라.
먼저는 나 여호와를 사랑하고
사명자를 사랑하여라.
그리고 너희 형제들과도 서로 사랑하여라.

이같이 먼저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에
조건을 먼저 세워야 한다.
그것이 선행되어야
생명의 역사 이룰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 그러면 실제적인 전도방법은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먼저는 영적인 조건을 세워야 한다.
21일 40일 조건, 철야조건, 금식조건.
조건만 세우는 자들이 있구나.
조건을 위한 조건이 아니라
깊은 기도하여 나의 마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아무리 조건을 세워도
나와 심정이 통하지 않는 기도,
나의 마음을 감동시키지 못 하는 형식적인 기도가
무슨 힘이 있겠는가?
너희 모두는 나의 심정,
나의 마음을 받을 수 있는 기도하여라.
2000년 전 사도들은 나의 마음 받아
내 애타는 심정으로 전도하여
생명의 표적을 일으킨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나와 일체되어
기본 1인 1명, 1인 2명, 1인 3명 전도는
개인 전도로 꼭해야 될 것이다.
먼저 자기 달란트대로 목표를 정하여라.

개인 전도는 영적 조건을 세우고
나와 일체되어 전도하면 된다.
특별한 방법이 문제가 아니라
매일 부딪쳐서
부지런히 행하면 되는 것이다.
애타는 마음으로 나의 마음으로
나와 함께 전도해 보자.
전도는 실상 너희가 하는 것 같으나
내가 하는 것이다.
너희는 나의 육신 되어
나에게 묻고 내 의중을 살피며
내가 주는 감동대로 움직여 보고 전도해 보아라.
내가 직접 키운 자들, 때가 된 자들,
준비되고 예비된 자들이 있으니
그들을 찾으라.

전도하러 나갈 때에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적당히 하지 말고,
정말 내 심정으로진정 감동이 되는 자가 있을 때가
지 하여라.
너희는 나의 육신 되어
지옥 갈 자를 구원하는 자니
담대하게 당당하게 전도하여라.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가 있거든
위촉감 받지 말고 너희 말을 털어 버리라.
나의 말을 들을 자는 많으니라.

그리고 전도는 생활이 되어야 한다.
특별히 노방전도를 나가는 시간도 필요하겠으나
평소 모든 삶 가운데
생명전도에 대한 의식이 깨어 있어야 한다.

학교 가는 길에, 출퇴근길에,
용무를 보러 가는 길에 평소 모든 삶 가운데 뜻 있
는 생명을 언제 만날지 모르니
24시간 부딪치는 모든 사람들을 유심히 보아라.
그 같이 모든 시간 가운데
생명에 대한 의식이 깨어 있어야 전도할 수 있다.

그리고 생명은 타이밍이 너무 중요하다.
전도하여 뜻있는 자를 아무리 만나도
빨리 서두르지 못하여 타이밍을 놓쳐
생명이 유실되는 일이 너무 많다.
노방 전도하여 연락처를 주고받았으면
그날 저녁이나 늦어도 다음 날은 연락하여 구체적
인 관계 형성을 하여야 한다.
친근감 있게 관계성을 형성하든지,
구체적으로 만나는 날짜를 잡아야 한다.
빠른 구름이 되지 않으면
생명을 다 놓치는 것이다.

생명을 만났으면 그 대상에 대해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정신세계가 어떠한지, 삶이 어떠한지 보아야 한다.
이성관이 어떠한지 이성적으로 깨끗한 자인지, 인생
관, 가족사, 성격, 인격,
좋아하는 것, 싫어하는 것 등
그 사람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여
기본적으로 선악분립이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 사람의 성향을 알고
그에 맞게 인생 얘기를 해서
바로 신앙으로 연결시켜야 할 자인지,
문화적인 것과 종교적인 것을
같이 병행해서 할 자인지,
문화적인 것을 먼저 접해
신앙을 넣어줘야 할 자인지
잘 분별하여 연결하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생명이 탄생하려면
태반이 튼튼해야 하듯이
먼저 애기한 바와 같이
교회와 조직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있지 않으면
생명이 온전히 정착하고 클 수가 없다.
부모가 서로 사랑해야
자녀가 정서적으로 잘 성장하듯이
교인 수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너희들이 나와 사랑으로 일체되고
또한 너희가 서로 사랑으로 일체되었는가에 따라
생명의 삶과 죽음과 성장이 좌우된다.
그러니 너희 모두는
사랑으로 먼저 일체되어야 할 것이다.
사랑이 있는 곳에 생명의 결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확실하게 말씀을 통해서
근본 창조주 나 여호와를 알게 해주고,
메시아 구원자 예수에 대해 알게 해주고,
성령의 존재를 정확히 알게 해주고,
성령 집회를 통해 성령을 받게 해주고,
너희 선생의 역할을 정확히 가르쳐 주어 그와 일체
되어
주일 수요 말씀을 중심하게 해주고,
계시의 말씀의 가치도 가르쳐주고,
사탄의 실체에 대해서,
죄와 의에 대해 정확히 가르쳐 주어
스스로 나를 찾고 악의 세계를 분별하며
말씀을 실천하며
자립적인 신앙인이 될 수 있게 하여라.
그리고 모든 근본이 사랑임을 깨닫게 해주어 끊임
없이 내 사랑에 도전하는 자가 되도록 가르쳐 주어
라.
그리고 생명에 대한 가치도 깨닫게 하여
생명을 바로 전도할 수 있도록 의식을 심어 주어라.

이같이 개인 전도는모두가 각자 받은 달란트대로
목표 설정을 하여 섭리 모든 자들이 해야 할 것이
다.

그리고 전도된 신입생을 말씀으로 온전히 성장시켜
그 신입생이 바로 전도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갖추면
생각지도 못한 많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한명을 전도하더라도 정확하게 관리하고 교육하여
그 한명이 바로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시스템화
하여라.

선교·교육국과 교역자는 잘 들어라.

전도는 숫자 채우기가 아니다.
관리와 교육이 제대로 되지 못하는 상태에서 생명
전도는
결국 생명이 뿌리를 깊이 박지 못하여 유실인원이
되어 밀 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게 된다.
그러니 10만 선교를 온전히 이루려면
전도와 관리과 교육이 확실히 병행되어야 한다.
이 체계를 먼저 확실히 잡아라.

1명을 전도하여
재림에 깨어 있는 확실한 주의 신부가 되고 주의
사도가 될 수 있는
말씀과 관리와 교육 시스템을 만들어라.

자료는 이미 무궁무진하다.
그러나 이것을 시스템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
교회 자체적 수준으로는 10만을 감당할 수 없다.
그러니 선교·교육국에서
집중 10만 선교·교육 팀을 짜서
하나가 되어 연구하여라.
실제 전도에 능력 있는 자,
교육에 능력 있는 자들을 모아
연구팀을 짜서 모임을 하여라.
내가 많은 능력 더하리라.

선교국은
전도의 정신을 심어주고
전도의 불을 일으킬 자를 세워라.
실제 현장에서 실력 있게 전도를 한 실력자를 세워
모두가 전도할 수 있도록 의식 교육을 하여라.

그러나 분위기만 띄우면 안 된다.
실속이 없는 것은 실없이 끝나게 되고 마는 것이다.

그리고 구체적인 전도 방안을 짜라.
개인전도 방법, 팀전도 방법,
교회 다양한 전도방법, 부서 전도 방법,
전도단 전도방법, 엘리트 전도방법 등
확실적으로 하지 말고
다양한 방법을 연구하여
다양하게 전도할 수 있도록 하게 하라.

선교국 자체적으로 다 할 수 없다.
부서를 끼고, 교회를 끼고,
목회를 해 봤던 경력자를 끼고,
현장에서 전도하는 실력자를 끼고
같이 팀을 만들어 연구하여라.

너무나 시급하다.
많은 자들이 전도를 하고자는 마음은 간절하나 어
떻게 할지 몰라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모든 자들이 전도할 수 있게끔
연구하고 체계화하여라.
은하수가 전도하는 방법,
중고등부가 전도하는 방법,
대학부가 전도하는 방법,
청년부가 전도하는 방법,
가정국이 전도하는 방법,
장년부가 전도하는 방법,
예술단 각부서가 전도하는 방법,
엘리트 전도방법,
전도단이 전도하는 방법.
부서별로 다양하게 연구해 보아라.
사회 각 기관을 끼고
전도하는 방법도 있으니 잘 활용하고
모든 부서는 전도 방법을 연구하는 작업을 하여라.
관리부서는 없다.
모두 전도 부서가 되어야 한다.
은하수도 전도해야 하고,
모든 부서도 전도부서가 되어야 한다.

늘 전도하는 사람만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전도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부서별 특성에 맞게

전도 방법을 연구하고 가르쳐 주어야 한다.

그리고 교육국은
전도된 1명을 모델로 잡아
그 한명이 완벽한 섭리인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의 틀을 잡아라.

먼저 강의의 확실한 틀을 잡아
기본 교리를 정확히 가르쳐 주어라.
섭리인부터 강의에 대한 혼란이 있으니
자료를 체계화하고
교육을 철저히 해주어야 한다.

때가 급하다.
교회는 많으나 지도자는 부족하고
강사도 부족하고 기술도 부족하고
자립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교회가 많지 않다.
전도수가 많아지면
교회 자체적으로 강의를 다 감당할 수 없으니 강의
교육을 하여
전 교인을 강사화하여야 하겠고,
그것으로도 부족하니
선교회 자체적으로
많은 생명을 감당할 수 있는 지원책을
연구하여야 한다.
지역별 강사지원, 강의를 방송자료화 하여 많은 사
람을 감당할 수 있는 체계도 갖추고 그 외 다양하
게 강의 지원이 되도록 연구하여라.

강의만 열렁뚱땅 전하지 말고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확실하게 의식 교육이 되어야 한다.
성삼위에 대한 확실한 관을 심어주고,
메시아의 역할에 대해 확실히 가르쳐주고
시대 사명자에 대한 관을 심어 주어
철저히 사명자를 중심으로 할 수 있게 하도록 하라.
성령의 역사를 알게 해주고,
재림을 철저히 준비시키고,
주의 신부로서 완벽하게 사랑으로 나에게 도전하는
자 되게 하라.

30개론, 성삼위에 대한 관, 메시아관, 성령집회, 계
시말씀, 창조목적·타락, 사탄론, 죄론, 사랑관, 재림
관, 전도의식교육, 기본 재교육 등

모든 것을 자료화하고 방송자료화 하고,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시스템화 하라.

대규모 집회를 한다고 해도
결국 생명은 1:1 관리와 교육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섭리는 단순히 군중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신부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대규모 집회는
철저히 준비하여 진행해야 한다.
집회 성격을 정확히 잡고,
대상의 수준을 정확히 정하여
목표 설정을 하여 진행해야 한다.
집회를 통해 일회적으로 생명의 결실을 보기는 어렵다.
집회를 통해 인원동원은 할 수 있겠으나
한 번의 참석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 집회를 한다면
이미 그 전에 많은 인원이 확보되어야 하고 집회
말씀을 소화할 수 있는 수준으로
미리 말씀을 어느 정도 들어
현장에서 성령의 불을 받고 끝까지 들어 보겠다고
스스로 결단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해야 한다.
대규모 집회는 실상 어느 정도 준비된 자가 와야
남아지는 것이다.
이미 현장에 오기 전 전도자나 관리자가
이미 전초를 확실히 하여
남아지는 생명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소규모 집회는 실속적으로 해야 한다.
정확한 대상의 설정과
그 대상에 대해
어느 정도의 말씀을 할 것인지
어느 정도 전도자와 관리자가 미리 알아야 하고, 그
특성에 맞게 전초 하여 데리고 오면 실속적으로 남
길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집회를 만들기만 하지 말고 집회를 잡게 되면 정확
히 집회 성격이 어떤 것인지
모든 자들에게 인지 시켜줘야 한다.
생명을 데리고 오기만 해도 되는 전초 집회인지, 신
입생 성령 집회인지, 말씀 집회인지, 예술전초 행사

인지, 종교성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이방인을 대상으로 한 것인지,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한 것인지,
다양한 자를 다 대상으로 해도 되는 성격인지,
중고등부·캠퍼스·장년부
어느 대상을 상대로 하는 집회인지
정확한 집회 성격과 대상이 나와야 되겠다.

항상 집회는 사람을 모으는 데만 치중하고 그 이후
관리는 허술하여
큰 결실 없이 끝나는 경우가 많다.
급하게 집회를 잡아 인원 동원하는 것은 별 소득이
없다.
집회 이후 결실을 보아라.
평소 말씀을 어느 정도 듣고 있던 생명을
집회에 연결시킨 교회는
집회 이후 생명이 은혜를 받고 신앙이 다져져 남아
지고,
집회에 급히 당일 인원 동원한 교회는
결국 생명이 남아지지 않지 않았느냐?
그러니 집회를 하게 되면
당일에 무엇을 얻으려 하지 말고
그전부터 이미 전초와 기본 말씀을
어느 정도는 해 놓아야 하는 것이다.

개인전도든 집회를 통한 전도든
결국 생명이 남아지려면 1:1 관리,
교육이 들어가야 함으로 정확히 집회 성격을 잡고
집회 이후 차후 생명관리,
연결 프로그램을 같이 잡아야 한다.

교회 자체적으로 그러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소화할
수 있는 교회도 있겠으나
그같이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
차 후 관리에 대해서도 연구하여
프로그램을 잡아 주어야 하겠다.
중요한 말이다. 새겨들여라.

10만은 작은 숫자가 아니다.
‘하면 되겠지?’하며 막연히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더욱 연구하여
그러한 생명을 감당할 수 있는 조직과 말씀과 관리
교육 시스템을 빨리 구축해야 할 것이다.

빠른 구름이 되어라. 때가 급하니라.

10만 선교의 핵심은 사랑이다.

사랑으로 나와 사명자와 형제들과

먼저는 일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사랑함으로 모든 것 이루어야 하느니라.

사랑과 기쁨과 소망으로 생명의 역사 이루어 보자.

전도는 숫자 채우기가 아니다.

전도, 관리, 교육이 한 틀이 되어

재림에 깨어있는 사랑하는 신부, 사도를 만드는 것
이다.

그리고 모두가 전도자가 되어야 한다.

전도된 자도 바로 전도자가 될 수 있게 교육하고
관리하라.

너희 모두는

나의 소망이요, 나의 사랑이요, 나의 육신이다.

그러니 너희는 더욱 완전하고 온전한 나의 신부가
되어

나와 일체되어 내 마음 내 사랑 받고,

너희 선생의 정신 받고,

2000년 전 사도의 정신 받아

생명의 표적 일으켜 보자.

사랑한다.

내가 너희와 함께할 테니

땅 끝까지 이 복음 전해보자.

사랑한다. 섭리의 신부들아.

내 기대, 내 소망들아.

사랑한다.

너희의 신랑 나 여호와다.